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시므온·나오미 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오늘 1부 예배 중에 2013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3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중구용산지방 3월 교역자 회의가 우리교회에서 7일(목)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네 번의 토요일(9, 16, 23, 30일)에 걸쳐 <이사야서>를 통독합니다. 9일 오전 10시에 세미나실에서 시작합니다.

2013년 부활절 세례·입교교육이 열립니다. 세례교육, 유아 세례교육은 16일(토) 오후2시, 입교교육은 23일(토) 오후 2시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봄학기 성서학당이 12일(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강합니다. 3월은 요한복음(김재홍 목사), 4월은 마태복음(이범석 목사), 5월은 마가복음(신진식 전도사)을 공부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신앙실천을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 55:1~9 / 시 63:1~8
고전 10:1~13 / 눅 13:1~9

계 9:1-11

오늘 식당 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이용숙 최희영 신연화 유영남 김정민
다음주 식당봉사 : 박홍재 차혜심 허명선 정연희 한상경 오정은 정선희 이광욱
오늘설거지봉사 : 김기성 이은정 김영아 이은주 황현성
다음주설거지봉사 : 강세기 이소애 변재민 이소혜 이선화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껍게 쌓였던 눈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리고, 차갑기만 하던 바람의 냉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날카롭고 차가운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따스하고 푸근한 사람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이들의 길을 인도해주십시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새로운 직임을 담당하게 되는 이들,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 한걸음 한걸음을 희망과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성실과 진실함으로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고속이	권미숙	권현숙	김기석	김희우	김남종	오복순
김범진	김미현	김상호	최선미	김순자	김영아	김재홍	최희영	김정진
김준우	우순덕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김혜영	오규만	김훈동	유경순
류건형	이주은	문홍일	민병배	문현미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상규	박인혁	박준희	이기문	박창운	허정윤	박혜경	방문성
박혜경	방민방	방준배	배삼순	서정순	성지현	신진식	변혜정	안세진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양상철	박재란	왕수명	이경남	이동천	이봉옥
이윤석	박안수	이정은	이종배	고정림	임고운	임영	정경례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정연희	정현선	주경진	이윤정	최미자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최철수	곽권희	한상균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한인철	조윤숙
허성호	진은혜	허준호	홍복선	홍성식	이유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곽권희	권혁순	박혜경	김남종	김용훈	오정은	김필순	류준모	심호선
박병구	박창운	허정윤	백묘현	양준하	이광용	형인순	이증자	임보람
장원호	박성희	전웅	정두리	정은선	장동훈	무명8		

녹색꿈헌금:

김범윤	김범진	김미현	신진식	변혜정	윤윤	윤예윤	윤정덕	이범춘
-----	-----	-----	-----	-----	----	-----	-----	-----

	장혜숙	백혜숙	심림	송임회
	노순옥	박성희	이준림	김윤은
	김재홍	최경미	서원경	김이은
	장영숙	신영신	김진경	문영혜
	정경례	진정숙	정경례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곽권희
	권미숙	박미영	심심	권미숙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이순정
	이형숙	윤수진	이형숙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이형숙	김정현
	정영선	서정순	심심	송양진
	박혜경	조향미	조향미	정영현
	김재홍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2013 청과 교회학교 교사 임명

교육부장 : 김인걸

교회학교장 : 하현철

유 아 부 : 권미정(부장) 최희영 이해수 이용현 최다미

유 치 부 : 주혜연 김태환 최문희 이운진

아 동 부 : 광권희(부장) 윤 윤 방 준 리 봄 이진영 조재훈 조지연
하진솔 박영실 하진채 고정환

중고등부 : 장성호 김명희 양상철 박수경

청 년 부 : 김경연(부장)

▪ 경건한 예배를 위한 예절 ▪

예배 시작 전 5분 전에는 도착하여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 전 교우들과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당 안으로 커피 같은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삼가십시오.
핸드폰은 진동으로 설정해 놓거나 꺼두십시오.
특정 좌석을 자신의 자리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되도록 앞자리, 안쪽 자리부터 채워 앉으십시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손성현 신진식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형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릇된 것에 얽매이며 살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말하며 자유롭게 행동하며 사십시오.

아멘. 자유를 허락받았음을 잊고 구습에 얽매인 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시므온 · 나오미 선교회 주관 예배	3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혜경 권사	이진영 선생 박석희 집사

3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정한구 박효선 왕영은 김금순
	헌금위원	김인걸 이순정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제가 있는 대학은 가톨릭 대학교인데, 어쩌다 보니 제가 교무처장직을 맡게 되어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마태복음을 읽는 ‘담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는 입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당신 이웃을 당신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은 몇 번이나 읽어도 그 울림이 큼니다. 채플을 담당하는 선생님에게서, 이 말은 고대 유대교에서 구전되어온 랍비의 가르침이라고 배웠습니다. ...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입장료도 받지 않아 언제나 많은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하지만 반바지에 일본식 슬리퍼, 야구모자를 쓴 관광객들이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얽치없이 종종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사진을 찍고 있어도 노트르담 성당 안에 있으면 ‘좋은 파동’이 감지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지요. 이전에 남프랑스 콩크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산 하나가 성지였는데 거기도 그 파동이 굉장했습니다. 살이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하늘 색깔도 나무들의 색깔도 그 투명함이 세속의 것들과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

그때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조용히 파동을 포착하려고 심신의 감도를 올리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들을 수 없을 만큼 희미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신호를 전력을 다해 수신하려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메시지를 송신하려고 하는 사람, 여기에는 없는 바깥 세계와의 교신 회로를 연결하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종교교육을 싫어하는 것은 이 ‘바깥으로’라는 근원적인 경향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국민국가’에서 종교는 여기와 저기 사이에 절대적인 분할선을 긋는 기능을 합니다. 근대적인 국민국가라는 정

치적 개념은 정치사적으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한 신성로마제국의 와해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국경선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 것이 종교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있던 신성로마제국을 가톨릭 신자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만의 두 나라로 분할한 것이죠. 국민국가는 본질적으로 -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는 별도로 하고 - 단일 종교에 의한 국민의 정치적 재편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는 여기만의 종교로 저기는 저기만의 종교로 고정시켜, 양쪽은 영적으로 단절되고 그 사이에 어떠한 영적인 연결다리도 있을 수 없는 것이 국민국가가 신봉하는 종교관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절과 배제의 역학만이 작동하고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험의 계기는 치명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의 국경선과 영적 경계선이 일치한다고 믿는 사람들, 혹은 일치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 종파의 교의에 충실하고, 계율을 엄수한다 하더라도 혹은 죽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그 종교의 지도자를 존경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을 ‘광신적인 종교적 원리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의로 ‘영적이다’는, 바깥과 소통하고 싶다는 지향으로 가득 찬 것에 모든 것이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경지를 향해서 그 경지를 넘으려고 하는 지향만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